

“차량 계근소 설치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죠”

각 지역별로 구성된 계우회라든가 또는 본회 산하의 분회 등이 기존의 단순한 친목단체 성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회원들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추진하는 예가 점차 늘고 있는데 이는 양계업의 발전을 위한 움직임으로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가평군 일대의 육계 생산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가평육계분회도 이와같은 시대의 흐름에 편승, 자신들의 요구와 실천의지를 표출시켜 구체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지난 3월28일 제1회 가평군 육계 인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기존의 설악계우회, 위곡계우회, 창의친목회 등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좀더 확대·발전시켜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진정으로 긁어주고 필요한 사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단체로서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일치로 우선 26명의 회원이 지난해 본회에 분회 가입신청을 했다.

그후 대한양계협회 가평육계분회라는 정식단체로서 설립 승인을 받았다.

현재 가평군은 설악면이 육계업의 주요단지로서 80만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100여명의 육계인이 약 120만수를 사

□ 취재/함경숙 기자

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식으로 분회가 설립된 지는 별로 안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자신의 직업, 육계업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을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열기가 대단하다.



△민해근 분회장

민해근 분회장은 현재 사육규모 면에서는 매우 영세하고 소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지만 회원들의 육계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대단하다"며 이 지역 회원들의 실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더욱이 상수원 보호지역인 청평댐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기에 유리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육계업은 육계업 나름대로의 특성이 어느정도 인정되어 큰 장애요소가 되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고.

하지만 시설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의도로 계사의 신·증축 또는 개축을 시도해 보지만 관계기관에서 제시하는 까다로운 절차와 결림들이 많아 생산자의 입장에서 아니 농민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업무 처리가 아쉽다며 고충을 털어 놓기도 한다.

몇몇 재벌그룹의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별장신축은 버젓이 허가를 해주면서 농민이 좀 더 잘 살아 보자고 계사시설을 개선한다는 게 왜 그리 위법사항이 많은지도 저지 남득하기가 어렵다고 한 회원은 토로한다.

90년도의 주요 사업계획을 알아 보면 현재 가입 회원의 10%정도가 사료공동구매로 원가절감을 꾀하고 있는데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로 생산농가에서 가장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료구입에서 좌우된다고 볼 때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아리 구입도 회원들의

강화된 조직의 힘을 이용, 우수한 품종의 병아리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종계생산성 저하 문제로 인해 병아리가 부족한 경

◇가평육계분회 회원 명단◇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107
- 전화 : (0356)84-8130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회 장	민 해 근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84-7299
부회장	김 동 만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84-7143
부회장	장 기 철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84-7523
총 무	윤 영 빈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84-8220
감 사	이 의 정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84-7964
감 사	이 덕 용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84-7219
감 사	권 성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84-7536
회 원	엄 명 호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84-7674
〃	탁 광 남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84-8406
〃	김 종 철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	허 광 호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84-8074
〃	이 강 설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84-8025
〃	남 보 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84-7624
〃	최 광 용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84-7521
〃	한 재 호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84-7241
〃	이 강 성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84-8056
〃	석 인 흥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	84-7966
〃	강 대 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84-7327
〃	박 응 오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84-7657
〃	박 창 부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84-7507
〃	김 광 철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84-8243
〃	한 상 은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84-7650
〃	박 창 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84-7988
〃	홍 순 관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84-7964
〃	문 창 은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84-8155
〃	박 천 수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84-8424
〃	최 대 금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84-7513
〃	신 영 식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84-7325
〃	박 영 수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84-0776
〃	김 영 식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84-1507



◁ 가평군 육계인들의 결집된 의지가 하나로 모여져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초석이 될 수 있었던 제1회 가평군 육계인대회

우, 일정한 양의 병아리를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또 병아리가 과잉생산되어 남아 둘 때는 거래하는 부화장의 병아리를 적정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풍토를 가꿔 나가기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가평분회의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은 차량계근소를 육계사육용가가 밀집되어 있는 설악면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는 평내에 위치한 계근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위치상 3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 2천수를 출하할 경우 30kg 정도가 감량되어 회원 전체로 볼 때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연료비 소모의 증가, 인력보조문제 등 차량 1대분을 출하할 경우 제반경비를 계산할 때 생체가격이 kg당 1,000원일 때 3만원 정도의 금액을 손해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한 개인의 손해액은 3만원이지만 가평군 일대의 육계인이 100여



△ 왼쪽부터 운영진 총무, 김동만 부회장, 민해근 회장, 장기철 부회장, 이의정·이덕용감사

명이라고 볼 때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월 5천원의 분회 회비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여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사료,약품,부화장,유통상인들에게 일정액을 공동 출자토록 하여 이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부터 육계가격이 제법 좋아 육계인들의 입가에 모처럼 웃

음이 찾아 들었다.

정기가 안정적인 때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산적해 있는 문제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풍토가 우리 주위에서, 아니 가평육계분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어 국내 양계산업의 앞날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양계**